

<2018년 4월 29일 주일말씀>

하나님과 주가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고 깨달아라

본 문 이사야 14:27

전도서 3:1-8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은 ‘하나님과 주가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고 깨달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말씀 시작>

- ◆ <매일>, 하나님과 주는 <목적>을 두고 행하십니다.
<매일> 행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로 <매일> ‘그날그날 해당되는 일’ 을 행하십니다.

- ◆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매일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낸 자, 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행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말씀해 줍니다.

고로 <함께하는 자>는 보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 ◆ <보낸 자>가 어디 있으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행하시는데,
반드시 ‘때’를 따라 행하십니다.

<때>가 되었기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 ◆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상황이 급변하여,
그리고 냉랭하던 남북한이 <남북 정상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낸 자가 시대 십자가를 저 주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70일’ 만에
남북한 정상이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그 육>을 통해 ‘먼저 할 일’을 하시고,
<주의 생각 그대로> ‘때’를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

- ◆ 이와 같이 모든 일들도 ‘정한 때’에 행하십니다.
- ◆ 하나님은 섭리사 안에도, 섭리사 밖에도 행하십니다.

<섭리사 안>에서는 ‘영적’으로 행하시고,
<섭리사 밖>에서는 ‘육적’으로 행하십니다.

<영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은
<새 시대를 좇는 자들>을 통해 행하신다는 말이고,
<육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은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 ◆ 사람들이 시대를 아나 모르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행하십니다.

〈새 시대를 알고 좇는 자들〉을 중심해서 행하시고,
이어서 동일하게 〈새 시대를 모르는 자들〉도 같이 행하게 하십니다.

- ◆ 〈새 시대를 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셔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를 믿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심〉을 보고,
삼위께 영광 돌리고 증거하며 주와 같이 행합니다.

고로 세상이 몰라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혹여, 〈새 시대를 따르는 자들〉이 몰라도 〈보낸 자, 주〉는 아시니,
그가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증거하여
알게 해 주고 깨닫게 해 줍니다.

- ◆ 〈남북 정상 회담을 한 양국의 두 정상〉이
때가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몰라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 ◆ 이미, 〈주〉는 **하나님은 때를 맞춰 행하시고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증거해 왔습니다.

- ◆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세계〉에서나, 〈안 믿는 자들의 세계〉에서나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자〉를 중심해서 ‘때’를 맞춰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가 시대의 죄를 대신하고 나온 지(십자가 기간을 끝내는

날로부터) 70일 만에,

<하나님이 정한 때>를 따라 ‘남북의 일’도 행하신 것입니다.

- ◆ 하나님은 항상 ‘한 때 두 때 반 때’를 따라 행하시고,
혹은 21일, 40일, 70일을 정해 놓고 행하십니다.

- ◆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 역사>도 ‘때’를 따라,
보낸 자가 땅에 온 지 70년 만에 행하셨습니다!

때는 2015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 항상 하나님은 <보낸 자, 주의 때>를 맞춰 행하십니다.
<그날그날 행할 것>을 매일 ‘그’를 통해 행하십니다.

마치 왕이 자신과 결혼한 여자를 통해 매일 할 일을 행하듯이,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중심해서
매일 행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 ◆ 모두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행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매일 ‘그때그때 그 날에 해당되는 일’을
<보낸 자>와 함께 행하시고 끝내십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행하십니다.

이에 따라 <민족>과 <세계>도 ‘때’를 맞춰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 ◆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주>가 행하면, <세상>도 따라서 행한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야 된다. -입니다.

- ◆ 매일, 매일이 중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통해 행하시는 매일이 중합니다.

이때가 중합니다.

<그날그날 하나님이 주와 함께 하시는 일>을 뺏기지 말고,

주를 중심으로 다 같이 행해야 됩니다.

그 날이 가면, 못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그 날 주와 같이 행하면,

<제대로 못 한 것>은 ‘후’에 반드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매일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고,

<못 하는 자>는 ‘작게’ 이룹니다.

- ◆ 매일 행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와 <지식>과 <질서>에 의해 행하기 바랍니다!

- ◆ 지금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행하시며,

시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모두를 향해

<평화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때 <주와 함께 행하는 자들>은 부활되어 행하게 됩니다!

고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 ◆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면,
<지난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자요,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 휴거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입니다.

<뒤에 처져서 그냥 따라오는 자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 하나님이 주와 함께 매일 무엇을 행하시는지 깨닫고,
삼위와 주와 함께 행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부활되어 산 자’입니다.

<산 자>가 주와 함께

- 매일 ‘부활의 역사’를 행합니다.
- 매일 ‘새로운 역사’를 행합니다.
- 매일 ‘기쁨의 일들’을 행합니다.

- ◆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부활되었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모두 알고 깨닫고,
<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같이 행하기’를 축원합니다.